

‘2023PIS’, 자원순환형 소재로 현재와 미래 가치 동시에 선도

한국섬유신문(2023. 8. 14.)

 오는 23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하는 섬유패션 전시회 ‘프리뷰 인 서울 2023’이 14개국에서 507개사(746개 부스)가 참가해 역대급 규모로 개최된다.

- 이번 프리뷰 인 서울(이하 PIS)2023은 자원순환형 소재, 윤리적 공정, 에너지 절감형 설비 등으로 탄소중립에 적극적인 재활용·친환경 등 다양한 소재들이 소개된다.
-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‘드라마틱 코어(Dramatic Core)’ 테마로 현실의 코어 아이템을 드라마틱 어필로 돋보이게 실현해주는 미래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지속가능한 미래형 산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섬유패션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선보인다.
- 다양한 글로벌 세미나 15회
 - 글로벌 섬유 기계 동향 세미나(ITMA 2023 REVIEW), 한-프랑스 섬유 순환경제 동향 컨퍼런스, 지속 가능 소재의 현재와 미래, 필(必)환경 섬유소재와 탄소중립 실천 전략, 섬유패션산업의 스트림별 DX 사례와 동향, 섬유산업 기술지원을 위한 시험 및 서비스 등 엔데믹 이후 급변한 소비자 행동과 시장 변화 등 다양한 글로벌 세미나를 통해 전문화된 정보를 공유한다.
- 해외에서는 255개사가 289개 부스 규모로 참여하며, 중국이 216사로 2019년보다 31곳이 늘어났다.
 - 주최측은 “지난 7일 기준 온라인 참관건수는 국내 5872건, 해외 486건으로 나타났다”며 오프라인 PIS 참관객은 올해 1만2000여명으로 예상하며, 2019년 역대 최고보다 33% 이상 늘어난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.
- ‘2023 트렌드페어’, 130개 브랜드 참가
 -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패션산업협회가 주관하는 2023 트렌드페어는 국내 패션브랜드와 유통, 패션기업이 참여하는 B2B2C 페어로 그래픽스트 만지, 그랜드보떼, 까이에, 리이 등 130개 브랜드가 참가해 비즈니스상담 및 소비자 판매전, 패션쇼, 패션테크PT 등의 부대 이벤트 진행 예정이다.